

退溪의 政治思想**

姜 周 鎭*

• 目 次 •

- | | |
|----------------------|-----------------|
| I. 『自銘』에 나타난 정치관 | V. 戊辰經筵啓筭와 民本政治 |
| II. 戊午辭任疏에 나타난 정치사상 | VI. 賢人政治論 |
| III. 戊辰六條疏와 그 사상 | VII. 聖學十圖와 天命思想 |
| IV. 甲辰乞勿絶倭使疏와 對日和親政策 | |

퇴계는 원래 정치사상가라기보다는 학자이기 때문에 그의 정치사상을 추출해 내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우선 그의 自銘, 辭任疏, 策疏 등에서 간추려 보고자 한다.

I. 『自銘』에 나타난 정치관

퇴계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自銘』을 스스로 지었는데, 이는 퇴계의 사상을 단적으로 표현한 名文으로 자기의 생애를 몇 줄의 4언시로 써 요약한 心懷文이기도 하다.

이 시문 가운데 「晩何叨爵」이란 말이 보이는데, 그 뜻은 「만년에 어찌하여 벼슬을 받았던고」하는 迷懷이며, 또 「爵辭愈嬰」이란 구절은 벼슬을 마다해도 자꾸만 내려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퇴계의 官路는 자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예전에는 개인의 영달과 가문의 영광

* 전 국회도서관장(작고)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10호(1976) 게재논문

이 오직 관직의 고하에 달려 있었으리만큼 퇴계도 관직의 등용문인 大科에 응하게 된 것이었고, 공부가 출중하므로 합격되고, 합격되고 나니 자동적으로 官界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관계에 일단 들어서면 실력 본위로 배치되게 마련이니 퇴계는 자연 翰林的 요직에 앉게 되었고, 요직에 앉게 된 즉 임금을 가까이 모시게 되고 가까이 모시게 된 즉 반대파가 생겨서 처신이 어렵게 되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므로 퇴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도 있다. 「進行之路 退藏之貞」-나아가면 넘어지니, 물러나서 숨어살겠네.

이리하여 선생은 벼슬을 버리고 陶山鄉里로 돌아와 글 읽고 후학들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내게 된다. 「婆娑初服 脫略衆訓」-평복으로 갈아입고, 뭇 비방을 떨쳐 버렸네. 조정에 있을 때는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비평과 비난과 칭송이 많았지만, 지금 이 같이 글 읽는 백성이 된 즉 그 같은 雜言을 안 듣게 되어 참으로 편하다는 뜻이다. 높은 덕과 수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감히 느낄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文意로 살펴보건대 선생은 합당치도 않은 잡언을 싫어했고 들어선 안될 사람한테 칭송과 비난을 받는 것이 마땅치 않아 官界를 물러나려 했으며, 당시 왕을 둘러싼 신하들에게 불평이 있고 그들과 뜻이 맞지 않아서 벼슬자리를 떠난 것이다.

퇴계의 정치관은 乙巳士禍때 화를 입은 仲氏 溫溪 李瀼와 晦齋 李彦迪 등 乙巳名賢들과 그 사상을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선생은 靜庵이나 晦齋와 같이 至治主義 정치사상을 가졌다고 하겠다. 참고로 『自銘』 전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生而多癡	壯而大疾
中何嗜學	晚何叨爵
學求愈邈	爵辭愈嬰
進行之路	退藏之貞
深愬國恩	竄畏聖言
有山巖巖	有水源源

婆娑初眼 脫略衆訓
 我懷伊阻 我佩誰玩
 我思古人 實獲我心
 寧知來世 子獲今兮
 憂中有樂 樂中有憂
 乘化歸盡 復何求兮

II. 戊午辭任疏에 나타난 정치사상

선생이 대과에 급제한 것은 중종 28년 나이 33세 때이며, 은퇴를 결심한 것은 명종 원년 46세 부터였다. 특히 명종 4년에 豊基군수로 外補될 무렵부터 더욱 물러날 뜻을 굳혔다. 이때 선생의 관직은 校書館校理겸 承文阮校理였는데, 이 무렵에 李芑의 黨이 선생을 신랄히 공격하고 모함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명종 2년 安東府使로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이때 이미 陶山에 養眞菴을 짓고 은거할 것을 결심한 듯하다. 이때부터 관직에 임명되면 연이어 사임서를 올리는 일이 되풀이되었다.

명종 4년에 豊基郡守 辭退狀을 監司에게 바친 이후 마지막 辭任願을 내게 될 때까지 모두 辭任狀을 36회, 辭任啓를 14회, 辭任疏를 3회나 올렸던 것이다. 이 가운데 狀의 형식을 취한 것과 啓의 형식을 취한 것은 비교적 사임 이유가 간단하지만, 辭任疏에는 장문의 사퇴 이유가 적혀 있다. 필자는 이같은 辭任願에 의해서 선생의 정치사상을 抄出해 보고자 한다.

對象官職에 따라 사퇴 이유는 다르지만 대략 다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

첫째는 身病을 이유로 사퇴의 뜻을 밝혔고,
 둘째는 노쇠했다는 이유로 사퇴의 뜻을 밝혔으며,

세째는 재능 부족을 이유로 사퇴의 뜻을 밝혔고,
네째는 염치 존중을 이유로 사퇴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조선 시대를 통해서 어느 사람이고 간에 사퇴서를 올리지 않은 선비가 없고 또 이러한 사퇴서는 예외 없이 身病老衰와 재능 부족, 염치 존중 등을 그 이유로 삼았던 것이지만, 뒤집어 말하면 이는 신병이나 노쇠로 인해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는 늙은이나 병자가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또 재능이 부족함에도 염치없이 그 자리를 지키려 하는 좋지 못한 獵官輩가 많았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조선의 사람이나 퇴계는 싫어했던 것이다.

그러면 선생의 사임소 중 대표적인 것이라 할 戊午 사임소가 제출된 당시의 정치 배경과 그 속에 담긴 선생의 사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무오 전전 해인 丙辰年(퇴계 56세 때)에 左相 尙震과 趙士秀 등이 선생의 등용을 건의했고, 또 戊午年(명종13년)에는 영의정 沈連源과 대제학 鄭士龍 등이 선생의 등용을 경연에서 왕에게 啓請하니 왕은 곧 선생을 召命하였다. 이때 사퇴하겠다는 疏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臣이 들건대 옛날의 선왕은 사람을 등용함에 있어서 재능을 참작하여 책임을 맡겼다고 합니다. 즉 큰사람은 크게 쓰고 작은 사람은 작게 썼으며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람은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불행히도 잘못 판단하여 사람을 등용하였을 때, 그 사람이 자기의 재능이 합당치 않음을 스스로 깨닫고 물러날 것을 청하면 이는 그대로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재적소에 사람을 앉혀야 大臣이 재상의 직책을 못다 한다는 비난을 듣지 않게 되고 小臣이 일도 못하면서 祿만 타 먹는다는 허물을 면할 수 있으며, 어진 사람이 그 자리에 있고 능한 사람이 그 직에 있어서 다 함께 충성을 다하여 정치를 바로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재능이 부족한 사람은 野에 물러가 있도록 允許 해주셔야 자기 분수에 따라 제 힘으로 살면서 예의와 염치를 지켜, 밑에서 정치를 본받을 수가 있습니

다. 이렇게 되어야 賢愚가 그 자리를 얻고, 禮讓이 행하여지고 治道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臣이 비록 무식하오나 어려서부터 臣道를 익혀 들었사온즉 임금의 소명을 받으면 즉시 나아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하오나 소명이 있다고 해서 한 요직을 고수하여 못사람이 비난하고 의심하는 속에서도 물러갈 뜻을 변치 않는 것은, 그 나아감이 임금 섬기는 의리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까 두려워해서입니다....」

대략 이같은 사임원의 이유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 점이 지적된다. 그 하나는 관직에는 賢愚와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고, 그 둘은 비난을 받아 가면서 그 자리를 고수함은 옳지 않으므로 마땅히 公직자에게는 進退之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퇴소를 통해서 본 선생의 사상은, 당시 조정에 무능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자리잡고 버티고 있는 것에 크게 불만이 있었다는 점이고, 또 간악한 무리들이 조정에 있어서 착한 사람을 헐뜯고 공격하므로 그들(주로 隻身과 奸臣)과 같이 일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선생은 현신은 간신이나 척신과 함께 조정에서 일할 수 없다는 사상을 가졌으며, 또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Ⅲ. 戊辰六條疏와 그 사상

명종 22년(퇴계 67세 때)에 명나라 황제가 서거하니 명에서 사신이 왔다. 이때 領相 李浚慶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文學史를 불러, 왕명으로 퇴계 선생을 上召케 했다. 소명을 받은 선생은 6월에 入都했는데, 그 사흘 후에 명종 대왕이 승하하였다. 새로 왕위에 오른 선조 대왕은 즉위 초부터 선생에게 관직을 계속 내렸는데, 즉위 후 곧 崇

政大夫議政府右贊成을 내렸으나 사양했다. 다시 5월에 判中樞府事職을 내렸으나 사양했고 8월에 弘文館大提學 겸 藝文館大提學에 임명되었으나 또 사양했다. 그러나 뒤의 것은 允許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선생은 임금께 여섯 조목에 달하는 정치적 의견서를 올렸는데 이것이 바로 「戊辰六條疏」이다. 이 戊辰六條疏는 퇴계의 문적 중 가장 정치적 의견이 강한 것이므로, 그의 정치사상을 논하려면 이를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6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조, 계통을 중히 여기고 仁考를 다할 것.
- 제2조, 讒訴를 막아서 兩官을 친하게 할 것.
- 제3조, 聖學을 돈독히 하여 정치의 근본을 세울 것
- 제4조, 道術을 밝혀서 인심을 바로잡을 것.
- 제5조, 腹心을 미루어 耳目을 통할 것.
- 제6조, 修省을 정성스레 하여 하늘의 사랑을 이어받을 것 등이다.

이 여섯 조목 중 제 1조와 제 2조는 주로 임금의 왕통과 관내 처리 문제를 進言한 것 같아 정치사상과는 관련이 없는 듯하지만, 한나라의 통치자로서 또 天意와 民意의 합일체인 임금의 인덕에 관한 것인만큼 그것은 한 개인의 덕을 논한 것과는 달리, 국가의 근본통치체의 완전무결함을 주장한 것이다. 계통을 중히 여기라는 것은 국가의 법통을 중히 여기라는 것인 즉, 왕위 계승자의 순위를 지키는 동시에 일단 왕위에 올랐으면 私를 떠나 공적 존재가 되라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다시 말하면 선조는 사적으로 볼 때 德興大阮君의 아들로서 入承大統했지만 선왕은 역시 명종인 만큼 그 점을 명심해야 하며, 명종과 대왕은 昭穆이 분명하므로 명종비에 대하여는 대왕비로서 정중한 효도를 잊어선 안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개인으로 말할 때 修身에 해당되나, 이 수신이 治國의 근본이듯이 대왕의 이 같은 仁德이 곧 치국과 백성을 통치하는 근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제3조 「聖學을 돈독히 하여…」는 帝王之學과 心法의 要로서, 이것은

순왕이 우왕에게 내린 말에 그 근원이 있다고 한다. 그 말에 의하면, 人心은 오직 위태롭고 道心은 精하고 하나이므로 그 가운데를 취해서 다스리라 —고 했다는 것이다. 즉 聖學을 떠나면 안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법을 세워서 법대로 해야 하고, 문화적으로 정치를 해야 하며, 德化로써 정치의 근본을 삼으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뜻을 쉽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大學』에 「格物致知, 誠意正心」이란 말이 보이고, 또 『中庸』에 「明善·誠身」으로 나타나 있다. 말하자면 정치를 하려면 격물치지에 맞도록 해야 하고, 誠意와 正心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고 했다. 격물치지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事物當然之理의 원칙에 따라 사회문제를 처리함을 말함이니 이는 곧 善政을 뜻한다. 필자는 이것을 현대적으로 부연하여 ①법치 정치, ②덕화 정치, ③문화정치를 주장한 정치사상이라 보고 싶다.

제4조 「道術을 밝혀서…」의 도술은 천도에 어긋남이 없는 정치를 말하는 즉, 천명에 순응하는 길을 밝히고 그 길에 맞도록 정치를 해야 된다는 뜻이다. 퇴계가 「唐虞 3대의 盛世에는 도술이 크게 밝아 기로에惑됨이 없어서 인심이 바르고 治化가 잘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여기서 말하는 도술은 천명을 잘 알아서 순종하면 邪術에 현혹됨이 없이 인심이 스스로 바로잡혀진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퇴계의 생각은 요·순 兩王은 도술을 잘 알고 왕위에 올랐으므로 천명이 백성에 잘 미쳤지만 공자나 증자나 자사, 맹자 등은 천명은 알았으나 왕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천명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대신 천명의 사상이 어떠한지를 후세에 남겨놓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도술은 천명에 맞는 덕화 정치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통치자는 천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며, 그 천명에 따라 덕화의 방법 즉 기술에 밝아야 천하가 잘 다스려진다고 했다.

제5조 「腹心을 미루어耳目을 통해야 된다」는 말에서 퇴계는 훌륭한 정치 방법을 제시했다. 즉 국가를 인체에 비유한 것이다. 한 나라가 움

직이자면 원수가 있어야 하고 그 원수를 만드는 복심이 있어야 하며, 원수의 복심이 모두 완전하려면 이목이 있어서 지켜 주어야 한다. 그와 같이 사람에게도 머리(元首)와 배(腹心)와 눈과 귀(耳目)가 있다고 했으며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전체 곧 인간이 지탱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퇴계는 원수를 왕에, 복심을 大臣에, 이목을 臺諫에 비유했는데, 내장의 모든 보급을 받아야, 머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며 머리나 내장도 이목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함정에 빠져 죽을 것인즉 원수는 國體의 주체가 아니라 일종의 기관이라고 보았다. 기관이란 곧 원수의 국가기관설과 같은 것으로서, 원수의 萬能과 專制君主主義를 배격하는 사상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다. 따라서 머리만으로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원수만으로 국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수는 원수대로 천명에 따를 줄 알아야 하고, 대신은 대신대로 보필을 잘 해야 되며, 또 대간은 대간대로 직언을 잘해야 국가가 잘 다스려진다고 했다. 퇴계는 이 三者의 三位一體論을 폈으니, 이른바 임금의 국가기관설을 주장한 셈이다. 원수도 대신을 잘 선임해야 하고 선임하고 信任함에 있어서도 도를 지키고 사사로운 복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臺諫의 直言을 받아들여서 간사하고 阿諛하는 무리를 물리쳐야 한다고 했다. 私心이 가득 찬 대신을 임명하면 원수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할 것이니 자연 흉악한 권세자가 될 것이고, 또 경직한 선비가 있어 그 銳鋒을 건드리면 반드시 竄謫誅戮을 가하여 賢者和 忠者が 모두 쫓겨나게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대간은 어디까지나 국가적 입장에서 또 공적 입장에서 이목 노릇을 해야지, 어느 한 권력층이나 집단의 이목이 되거나 또 그렇게 만들어도 안된다고 했다.

제6조 「修省을 정성스레 하여 하늘의 사랑(天愛)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한 것은, 한 나라의 원수인 군주는 먼저 自省해서 천명을 잘 받아야 들일 심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前漢의 大學者인 董仲舒는 漢武帝에게 올린 글에서 「국가(君主)에 곧 잘못된 일이 일어나려 할 때는 하늘(天上王)이 먼저 알고 재해를 내려서 견책하는 뜻을 알리고, 그래

도 군주가 자성할 줄 모르면 또 怪異를 내지 놀라게 하며, 그래도 改悛의 뜻을 나타내려 않을 때는 마침내 傷財를 내리 천벌을 가하게 된다. 이로써 보면 천심은 원래 인군을 사랑하여 그 亂을 입히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의견을 올린 것으로 미루어 퇴계가 董仲舒와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가졌음을 알 수 있고, 또 퇴계 자신이 전제군주주의 사상을 반대했으니만큼, 모름지기 군주는 항상 천명에 거역함이 없어야 하며 절대로 폭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전제군주가 되지 말고 민본 사상에 입각해서 民爲政治를 베풀라고 주장했으며, 천명에 순응하여 행동을 조심하라고 諫한 것이다.

IV. 甲辰乞勿絕倭使疏와 對日和親政策

이 疏는 甲辰年 즉 중종 39년(1544)에 올린 것으로 되어 문집에도 「甲辰乞勿絕倭使疏」로 적혀 있으나 사실은 명종 즉위 직후에 명종계 올린 것으로서 연보에는 乙巳年(1545) 7월로 명기되어 있다. 중종 5년 庚五年(1510)에 三浦倭亂이 일어나자 정부에서는 柳聃年, 黃衡등을 보내어 평정하는 한편 일본과 외교를 끊었는데, 그후 일본이 여러 차례 잘못을 사과하고 화친을 청해 왔으나 우리 조정은 지난 일을 잊지 못하여 계속 거절해 왔다. 그래서 일본측은 甲辰年 5월에도 화친을 청해 왔으나, 이 해 11월에 중종이 승하하고, 뒤를 이은 인종마저 즉위한지 1년도 못되어 세상을 떠나 을사년 7월에 명종이 즉위하는 多難莫急한 국내 사정이 중첩되며, 혹시 그 틈을 타서 왜적이 우리의 남해변을 침범하지나 않을까 염려되어 이 상소를 올렸던 것이다. 이때 선생의 나이 45세 관직은 弘文館 典翰이었다.

선생은 이 상소에서 일본이 애걸하다시피 청해 오는 國交再開를 거절

하지만 말고 화친을 유지하되 무사주의 외교정책을 취하라고 진언했다. 즉 강경책과 온건책을 겸용할 것을 주장하며, 중국의 역대 邊境戎夷政策을 예로 들면서 국위를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 교도적 입장에서 和親을 받아들이라고 건의했다. 만약 請和해 온 것을 거절한다면 兵亂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잘못하다가는 남쪽의 왜구와 북쪽의 야인이 다 함께 남북에서 협공해 오지 않는다고 누가 단정하겠는가? 그러므로 왜가 자청해 온 화친을 거절할 필요가 없다고 진언한 것이다. 학문하는 선비로서 국방에 기울인 이와 같은 관심을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될 줄 안다.

참고삼아 원문을 제시하면,

「當今天變現於上 人事闕於下 大禍重疊 國運艱否 根本砲隍 邊圉虛疏 兵耗糧竭 民怨神怒 此吾東方何等時耶 夫太白晝見乃兵興之象 臣聞雖古之聖帝明王亦不能必其禍難之不來 但當其未來則無負我致之之道 及其既來則有可以應之之備如斯而已 今欲修人事以應天變而絕島夷來朝之望是可謂無自致之道乎 開致兵之端而欲以應兵象之變臣未知其可也 自我致之而我能應之已非謹災之道 況以今之事勢未必能應之哉……

且國家已興北虜構釁 安和彼中不有諸酋之桀鰲 切齒報復而謀犯邊守者乎 設使南北二虜一時偶發則捲東而西掀衛復而背潰未識國家將何所恃而能辨此乎此臣之所憂也

(『甲辰乞勿絕倭使疏』)

V. 戊辰經筵啓筭와 民本政治

戊辰經筵啓筭는 선생이 새로 즉위하신 선조 대왕께 올린 經筵啓筭이다. 즉 丁卯年 명종 22년(1567) 2월에 명종 임금께서 선생의 上京을 재촉했으나, 수차 사양하다가 6월에야 상경했다. 그러나 신병으로 進拜치 못하고 있다가 명종께서 승하하니 선생은 7월에 선생의 行狀을

지어 바치고 陶山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새로 왕위에 오른 선조 대왕은 또 다시 선생을 소명하였다. 의정부 左贊成에 임명됐으나 수차 사양했으며, 戊辰年인 선조 원년 7월에 다시 서울에 올라와 思政殿에서 肅拜하고 사면코자 했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이 해 8월 弘文館提學 知經筵 春秋館事 成均館事를 제수 받았고, 이어서 判中樞府事가 되었다. 즉 이때인 9월에서 12월 사이에 여러 차례 경연에서 進講할 때마다 올린 글이 이 啓筵이다. 이 啓筵에는 선생의 정치적 의견이 많이 담겼으므로 그 중에 몇 가지를 가려내어 볼까 한다.

1, 戊辰筵啓筵一에서 선생은 국방의 중요성과 그 허실을 논하였으니 선생은 도학에만 조예가 깊은 것이 아니라 국방 문제에 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던 듯하다.

즉, 「지금 軍卒이 모두 낡고 피폐하여 軍隊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군비가 엉망입니다. 국방의 허술함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병졸을 모집하여 부족함을 메우는 일이 화급합니다. 이는 백성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만둘 일이 아닌 줄 아옵니다.」

「國之大事 固在兵戎 今者軍卒消耗 名存實無 內外皆然搜兵補闕 在所當急 不可以民之然否而停罷-」

다시 말하면 국가가 가장 중히 여겨야 할 일이 국방과 군비에 관한 문제임을 강조하여 文弱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당시의 조정에 일대 경고를 내렸던 것이다.

또한 선생은 당시의 解馳된 시국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지금 사람들은 태평에 젖어서 아무도 나라가 흐트러지고 망하는 화근이 백성의 원한이 엉킨데서 緣有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 원한은 마치 구름이 엉키고 산이 무너지는 듯한 형세이온데 신이 보건대 그것은 항상 백성들의 流離에서 비롯되는 줄 아옵니다.

「今人狂昇平 不知國家亂亡之禍 率由於民巖 雲合土崩之勢 恒起於民流 見臣此論…」

백성들의 원한은 벼슬아치들의 지나친 貪虐과 勞役, 過稅 등에서 일어나며, 이것은 또한 백성이 생업을 버리고 流離케 만들어 국력을 감퇴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였던 것이다.

2, 啓筭一에서 또한 선생은 민본 사상을 강조하는 적절한 의견을 겸해서 올렸다. 「옛말에 오곡 중 한 가지라도 흉년이 들면 백성이 굶주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百穀이 하나도 익지 않았으니 백성이 무엇으로 배를 채우겠습니까. 게다가 목화마저 전멸되었으니 백성이 무엇으로 몸을 가리겠습니까.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면 백성들은 모두 의지할 바를 잃고 살림살이를 집어치우고 유랑할 생각으로 붓짐을 싸게 될 것이 옵니다.」

「古法云 一穀不登 民受其飢 今則百穀不登 民何以充腹木花掃無 民何以蔽體 飢寒切身 民無所顧籍 皆思破家流散 結包荷擔而立…」

「이같은 흉년의 참상을 목도한 사방의 監司들은 災荒을 걱정하고 구휼코자 조정에 계속 보고 올렸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아직껏 한 번도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기 위한 訓諭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에서는 백성의 집을 수색하여 장정이나 중들을 잡아내고 있으며, 이것을 기회로 가혹한 관원과 포악한 아전들이 간악하게 백성을 헐박하고 침해하니 이보다 심한 성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로써 백성들은 살을 깎고 뼈를 굶어내는 듯한 착취를 한정 없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四方監司等官 目覩其慘 憂災恤荒報聞相繼 國家未發一號出一令 以爲 拯民生塗炭之命計 方且家搜戶括漁丁獵僧 酷吏暴胥 困緣作奸 脅馳侵督 急於皇火 剝膚推髓 靡有限極…」

이와 같이 선생은 당시의 백성들이 겪는 참상을 왕에게 일일이 알리고 대책의 강구를 촉구했으며, 또한 백성을 자식 사랑하듯 보살펴서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왕의 첫째 임무임을 강조했다. 이것이 바로 「백성이 나라의 근본」임을 강조한 퇴계의 민본 사상인 것이다.

VI. 賢人政治論

선생은 또 「敬」의 사상을 정치에까지 발전시켰다. 즉 「敬」에 대한 공부
 부가 철저해야 마음속에 도사린 사욕을 이겨낼 수 있으며, 사욕을 이겨
 내야 천명에 순종하게 되고 仁義禮智의 본성의 마음이 그 기능을 제대
 로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戊辰經筵啓筭에 비친 사욕에 관한 선생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자.

「私라는 것은 마음의 좁도독이요, 萬惡의 근원이다. 자고로 국가는 잘
 다스려지는 날이 적고 어지러운 날이 많으므로 자칫하면 몸과 나라를
 망치기 쉬운데, 이는 임금의 私를 못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다. 私라는
 마음속의 도적을 없애고 惡의 뿌리를 뽑아 버리면 다시 순수한 天理가
 되는데, 이같이 天理를 되찾는다는 학문에 공을 들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私者一心之蠱賊而萬惡之根本也 自古國家治日常少亂日常多 馴致於滅身
 亡國者 盡是人君不能去一私字故也 然欲去心賊 技惡根以得乎天理之純 不
 籍學之功不可而其爲功亦難…」

즉 선생은 학문을 해야 「私」를 버릴 수 있고, 「私」를 버려야 모든 일
 을 當然之理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현인 정치의 기본 원칙
 을 주장했다.

그럼 현인 정치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를 다시 啓筭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인, 즉 어진 임금은 다스리는 일을 마치 깊은 못(深淵)에 임한 듯
 살얼음(薄氷)을 밟듯 조심하고 삼가면서 했다. 낮에도 마음을 굳게 다
 지고 밤에도 걱정했으며, 잠시라도 태만하거나 소홀해서 구덩이에 빠지
 지나 않을까 두려워했다. 또한 절대로 자기의 학문이나 공덕이 이만하
 면 私邪로움에 빠지지 않을 만큼 되었노라고 자만하지 않았다.

「是以古之聖賢兢兢業業如臨深淵 如履薄氷 日乾夕惕 惟恐頃刻怠忽而有墮

抗落慳之患 其心未嘗自謂 學已至不患有陷於私邪也…」

그와 같이 조심스레 삼가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군주라야 현인이요, 이처럼 백성을 생각하는 정치가 곧 현인 정치라고 했다.

VII. 聖學十圖와 天命思想

『聖學十圖』는 선조 2년 선생이 判中樞府事로 있을 때, 왕에게 성군의 길을 밝히기 위해서 바친 것이다. 때에 선생의 나이 68세,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보인다.

「후세에 와서 人主가 천명을 받고 왕위에 올라 그 책임이 지극히 중대함에도 어찌된 일인지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전혀 옛 성군같이 엄숙한 데가 없고, 스스로 성인인 것처럼 여기며 王公이나 수많은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오만과 자만을 일삼다가 마침내 나라를 파괴하고 멸망으로 이끌리게 합니다.」

이 글 가운데 나오는 천명이란 무엇일까? 이같은 천명사상을 내세운 것은 퇴계가 처음이 아니며, 공자·맹자를 비롯해서 주자 등에게도 이미 깃들여 있다. 이 천명사상을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 받아들인 것이 곧 유교 정치관의 원칙인 것이다. 『中庸』에 보이는 「天命之謂性이요 率性之謂道라」하는 것이 모두 천명사상에서 온 것이며, 도학 정치란 곧 천명에 맞는 정치를 뜻하는 것이다.

퇴계는 또 『聖學十圖』 제9권에서 주자의 敬齋箴을 인용하여 敬齋箴圖를 작성했는데, 그 첫머리에

「正其衣冠 尊其瞻視 潛心以居 對越上帝……」

라고 했다. 이것은 곧 「敬」을 공부하려면 「옷을 단정히 입고, 보고 듣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며, 마음을 고요이 지니어 上帝를 대하듯 하라」는 말이다. 「敬」을 배우고 실천하려면 종교적인 경외의 심정이 필요하다는 뜻인 듯하다. 하늘을 무섭게 여기고 땅을 두렵게 여기라는 것이 성리 학자들의 공통된 사상이나, 천명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경외의 대상으로서 신이란 어떤 것일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李仲虎에게 답하는 글(「答李仲虎碣文示金而精」) 가운데 보이는데, 퇴계집 「書」의 위에 든 글의 별지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저 신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늘에 있는 신이요, 둘째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신이요, 셋째는 제사에 있어서의 신이다. 이 세 가지 신이 비록 다르나 신된 所以로 말한다면 같다. 그러나 서로 다름을 알고 또 같다는 것을 알아야 가히 더불어 신의 도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貴翰(李仲虎)의 문의 편지에서 말한 周子の 動無動 靜無靜의 신이라든가 晦庵의 오행의 神子思의 神之格思, 공자의 方體없는 신 같은 것은 모두 理가 氣를 타고 출입하는 신(理乘氣出入之神)으로서 在天의 신이요, 정자가 말한 凝神의 신이라든가 장자의 心神의 신, 晦庵의 在人爲理의 신, 心神安定의 신 같은 것은 모두가 사람에게 있는 신을 말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單稱으로 부르는 신이다. 이 밖에 정신이니 혼백이니 하는 다른 이름들은 모두 사람의 몸에 붙어 다니는 것으로서 음양을 갈라서 말하는 신이다. 즉 陰은 精이요, 陽은 神이며, 陽의 神은 魂이 되고 음의 신은 魄이 된다. 그러나 실은 둘이면서 하나이다. 그러므로 통칭 모두 신으로 부를 수도 있다. 그리고 제사에 있어서의 귀신으로 말하면 또 둘이면서 하나인 자에게 붙어 다니는 것으로서 往屈來伸하는 신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귀신은 聚散在亡의 情狀과 意思가 있다. 그러나 요컨대 두 가지의 신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이렇게 신에 관해서 구별은 했지만 퇴계도 천명에 관해서 정치적으로 깊이 연구한 것은 없고 오직 철학적으로 天命圖說이나 太極圖說로 기울어져서 순전히 이기론으로 집중되었다.

성리 학자들의 공통된 사상은, 국왕도 무서워하고 두렵게 여기는 在天의 상제를 想定했으니, 이는 필경 군주의 전제를 막고 선정을 베풀게 작용할 하나의 방편으로서 천명을 내세운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또한 퇴계는

在天의 신을 이기론으로 발전시켜 理乘氣出入神이라고 하여 천명이 즉 理氣다.

하는 주장을 하였지만, 천명 혹은 天理의 본체를 정치적으로 체계화하지는 못했다. 이는 우리 유학이나 성리 학자들의 공통된 결점이었다.